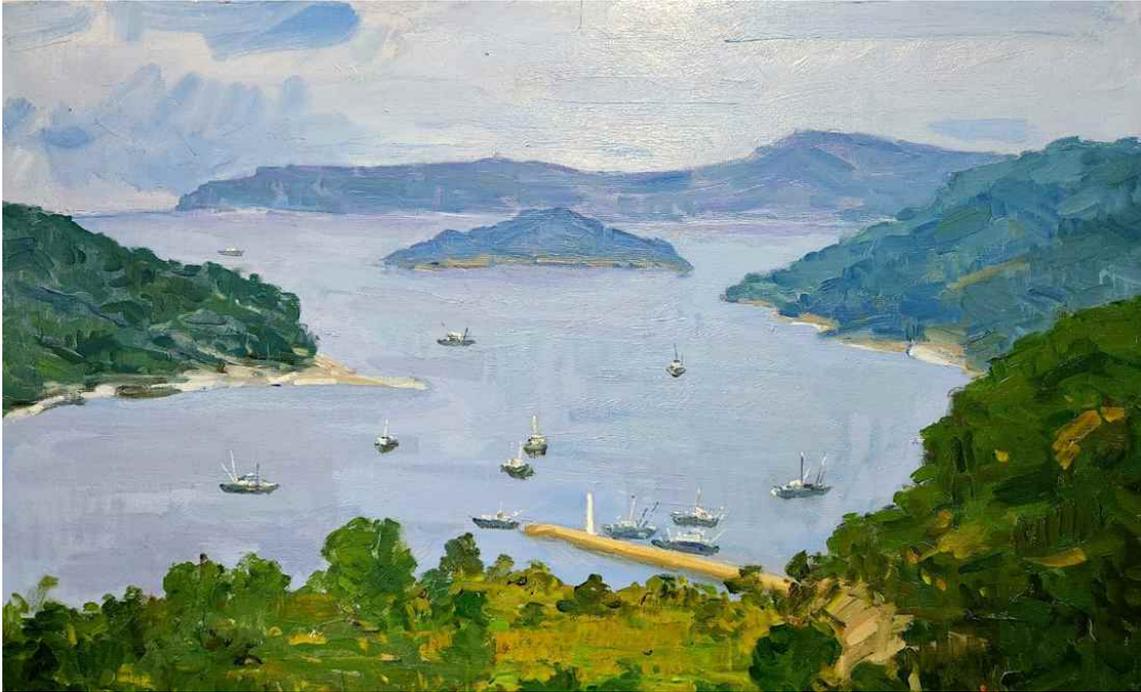


제1화

오빠는 왜 사세요?



청평역 사거리.
5살짜리 아들과 30살 엄마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
그 때 느닷없이 2톤 트럭 하나가
그들에게 돌진했다.

결과는 뻘한 일.
그들은 그대로 하늘로 날았다.
낙엽처럼.

그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종료.
그는 사고를 친 운전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오히려 죄진 사람처럼.

그런데 그를 쳐다보는
운전자의 눈길이 이상했다.
힐끗.

"콩밥 마니 맥여야지요."
"그런데 사는 곳이 철원이라는데 어떻게 여길 왔는지."
"직업도 없어요. 목수라고는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차도 동네 사람 차랍니다."

젊은 순경 하나가 그렇게 계속 주절거릴 때도
그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운전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경이 무언가 그를 다그쳤지만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운전자는 끝내 묵묵부답.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텅 빈 눈동자.

그는 그런 운전자와 상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군복과 그 장화
그리고 형형한 눈빛.

"아저씨, 술 드셨어요?"
".....!?"

아내와 아들이 하늘로 가는 순간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순경이 하는 말을 뒤로 하고
바로 병원으로 직행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뭘 하나?
그렇게 혼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리에서 하루종일 생선을 토막내던
아내의 손이 떠올랐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먼저 간 선배, 소월을 끌어들이는 것뿐.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는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일이 자신에게 생긴 것은?
그는 자신의 가슴을 찼다.

"만수대 극장에서 가장 먼저 내 작품을 공연하게 될 겁니다."
"개마고원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는 벌써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 같은 거 안 씁니다."

아주 오래 전
국립극장 공모에 당선되고,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들이었다.
호기를 부렸다.

자신이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마구 지껄였다.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는 줄 모르고

감동을 먹은 줄 알고 있었다.

오죽하면 똑똑한 바보! 라는 허명을
자랑스레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지만
얼굴 가죽을 모두 벗겨내고 싶지만
그 때는 전혀 남들의 시선을 과념치 않았다.

모두에게 친절하라.

그들 각자는 다들 어려운 전쟁을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반대로 살았다.

틈만 나면 세상을 비난했고
소위 잘 나가는 것들을 폄훼했다.
분명 이유가 있을진대.

"차라리 그렇게 살려거든 죽어라!"

"반드시 내가 세상을 바꾼다!"

그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 공갈을 치고 다닐 때
정작 그의 어린 아내는
시장에서 생선을 토막내고 있었다.

어쨌든 황당하고 허망한 장례식이 끝나고
일 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느닷없이 만난 그녀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천벌 받을 짓.

아내와 아들이 죽었는데...

트럭에 깔려 죽었는데...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입만 열면, 조국이 어떻게? 민족이 어떻게?를
떠벌리던 인간이
아내와 아들이 죽었는데.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더러울 수 있는가?

그는 줄줄이 미투 운동으로 생매장 된 선배들?을
떠올리면서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그 괴물들.

그래도 그들은 그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 걱정을 했는데.....

자신은.....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그들은 뒷구멍으로 가족이라도 챙겼다.
그들은 다들 잘 살고, 명망? 있는 것들이었다.

백근혜의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자들이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금 이 사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비청년 실업자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알량한 무대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
바보, 멍청이.

그는 그러면서도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전율
항상 또록또록 눈을 뜨고 있는
작고 동그만 그녀의 시계였다.

그는 그녀에게 준 자신의 전자시계를 생각했다.
왜 바꿔 차자고 했을까?

"오빠, 만나게 되면 12월."

"저도 휴대폰 같은 것은 키우지 않는답니다."

멍청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머릿속은 그녀와의 갖가지 위험한
몽타주들이 마구 지나갔다.

1. 함께 손깍지를 끼고 걸어가던.
2. 함께 촛불 아래에서 기도하던.
3. 하얀 팬티만을 입고 노트북을 두드리던.
4. 땅콩보다 고소한 입 냄새.
5. 들쭉날쭉, 고운 젖 가슴.

"내 냄새가 좋아요?"

"그걸 맡으며 죽고 싶어."

"샤를리즈 테론, 키이라 나이틀리를 넘어설 거예요"

우선 용기가 좋았다.

자연스러웠다.

공갈 치는 숨씨가 비슷했다.

당연히 뺨길 수밖에.

"그 여자들은 보통 이쁜 게 아닌데?"

"제가 더 어여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모자람이 없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녀.

게다가 나이까지 어렸다.

"둘 다 넘는다?"

"당근요."

살짝 스치는 입 냄새.

향기로웠다.

"원래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니나?"

"원래 이런 냄새만 맡고 다니세요?"

"흐흐흐!"

당돌했다.

어디에서 생기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밑지 않았다.

"무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면서요?"

"응?"

"그런 바보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드물어요?"

"칭찬인가?"

"노오. 한 쪽 눈이 망가졌다는 얘기에요?"

"인정."

그는 깨끗히 승복했다.

그래도 한 쪽 눈만 망가져서 다행.

다 망가졌으면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갔을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럽네."

"뭐가요?"

"솔직함이."

"세상에 솔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태도가 다를 뿐이지요."

"오호."

"그런데 오빠는 왜 사세요?"

"살기 위해서."

"노오."

"??"

"혹시 사랑을 먹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리고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 마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함께 있지 못함이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면서
함께 있음만 못한 것을.

뼈가 저렸다.
그리고 꿈처럼 함께 지낸 그 일주일.

냄새와 냄새가 뒤엉킨 짧지도
길지도 않은 날.
그들의 등 뒤로 떨어지던 햇빛.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던 달빛.

한 번 붙으면 끝장을 보았던 두 몸뚱이.
어제 일도 잊었지만
그 때의 그 난망한 정황을
어찌 잊을 수 있는가?
엄연 유부녀였지만
정말 처녀처럼 행동한 행복한 밤.
코와 눈과 입과 귀가
처음으로 맛 본 쾌락의 절정.

그는 그녀가 입고 있던 속곳의 냄새를
그녀가 벗어 던진 브라의 색깔을 잊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녀의 한 장
사진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밤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낮에 잠을 자던 철딱서니들.

벚꽃 그늘 속에서 속삭이던
뜬 구름 같은 맹약.

"북극 오오로라를 보러 가요!"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하루를 살아도 미미한 생은 싫었다.
정신의 아름다움.
벚꽃의 꽃말처럼
화약 피었다가 미련없이 지고 싶었다.

어차피 그에게 현실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 만 등불, 벚꽃 아래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그녀의 얼굴.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30대 후반같은 땡땡이 원피스 차림.

아슴아슴 머언 옛날 옛적에
어디선가 본 것같은 낯익은 표정
올바르게 자리잡은 두 개의 가슴,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말았던 속살 냄새.

그런 만남과 이별을 한참 전에 알아 버린
소월에게 또 물었다.

비단안개를 붙잡고
당신도 그러했느냐고?

눈들이 비단안개에 돌리울 때,
그때는 차마 잊지 못할 때러라.
만나서 울던 때도 그런 날이요,
그리워 미친 날도 그런 때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돌리울 때,
그때는 홀목숨은 못살 때러라.
눈 풀리는 가지에 당치마귀로
젊은 계집 목 매고 달릴 때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돌리울 때,
그때는 종달새 솟을 때러라.
들에랴, 바다에랴, 하늘에서랴,
아지 못할 무엇에 취할 때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돌리울 때,
그때는 차마 잊지 못할 때러라.
첫사랑 있던 때도 그런 날이요,
영이별 있던 날도 그런 때러라.

그녀를 처음 만난 그 날.
삼상한 봄 바람의 앞 마당.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간해서 전화를 받지 않지만
그의 작품을 흔쾌하게 믿어 주는
유일한 제작자, 박!

"한 형, 그곳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옵시다."

"어디?"

"목포항 문예회관에서 일주일입니다."

"목포항?"